

## 6 · 16 신오오쿠보 역앞 탄압 구원회 성명

우리는 A 씨의 친구들입니다. A 씨는 6 월 16 일 (일), 신오오쿠보 (新大久保 토쿄의 한인타운) 주변에의 재특회(재일 특권을 용서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 등의 민족 차별 주의자가 실시한 시위에 반대하는 항의 행동에 참가하고 부당 하게 체포되었습니다.

이 날, 한반도에 뿌리를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일해 그리고 살고 있는 신오 오쿠보 거리를 민족 차별 주의자들은 "조선인을 죽이라!" 등의 차별 폭언을 큰 소리로 반복하면서 시위를 했습니다. 이러한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시위는 올해에 들어와 반복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차별 주의자가 사람들의 눈앞에서 공공연하게 하는 차별 선동을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차별 시위가 실시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항의 소리를 높였습니다.

16 일도 "플래카드를 내걸어 차별 주의자에게 항의하자"라는 제안에 호응 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오오쿠보 거리에 모여 각각의 스타일로 항의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A 씨도 그 중의 한 명이었습니다.

차별시위가 신오오쿠보 역 앞을 통과했을 때입니다.

차별에의 항의 행동이 인도에서 전개하는 속에 수 명의 차별 주의자들이 국기를 내걸어 차별 시위에 성원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 의 행동 참가자를 끊임없이 도발해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안에서 주위의 항의 참가자와 함께 차별 주의자에게 항의하고 있던 A 씨가 부당하게 체포되었습니다.

이 날, 차별에 대한 항의자측에서는 4 명이 체포되었습니다(차별 주의자도 4 명 체포).

체포자 4 명중, 3 명은 다행히 2 일로 석방되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지금도 부당하게 계속 구속되고 있습니다.우리는 A 씨의 시급한 석방을 요구합니다.

미디어는 이 체포가 "재특회와 대립하는 그룹의 싸움"의 결과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극히 악질적인 도식화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현장에 일어난 것은 "싸움"이 아니고 차별 주의자·배외주의자들이 하는 증오·차별의 발언이라는 "폭력"이며 그에 대해 저항하는 "폭력을 그만두어라" 고 하는 "말"과 "행동"이었습니다.

폐색감이 가득 찼던 시대에 있어 지금 차별·배외주의적인 분위기는 사회 전 체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 망언을 반복하는 정치가들, "중립" 자세를 나타내는 미디어에 의해서 증폭되고 있습니다.

재특회등의 차별 주의자의 등장 이 사회가 낳은 것인 것은 틀림없다.

그리고 그들의 폭력을 이용해 사회운동에 개입해, 탄압을 통해 사람들의 사이에 분단을 반입해, 각각을 고립화 시켜는 것을 도모하는 경찰권력의 방식이, 차별 주의자들을 증대 시켜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민족 차별 반대와 탄압 반대를 동시에 강하게 호소합니다.

이 사회 상황을 조금이라도 바꾸어 가기 위해.

A 씨를 일각이라도 빨리 해방해라!

6·16 신오오쿠보 역앞 탄압 구원회 blog

<http://antifa616q.tumblr.com/>

<http://antifa616q.info-act.com/>

우리, 구원회는 이 성명에 대한 찬동 서명을 모읍니다.

찬동을 해주시는 개인 분,아니면 단체는 찬동 서명과 작은 메시지를 보내주십 시오.

[Antifa616q@aim.com](mailto:Antifa616q@aim.com)

■성명의 설명: 일본에서 퍼지는 민족 차별 주의에 대해

도쿄의 신오오쿠보는 한인 타운으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한인 외에도 다양한 나라로부터 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 다민족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신오오쿠보로 "좋은 한국인도 나쁜 한국인도 모두 다 죽이 라"등의 플래카드를 내걸어 한국인을 공격해, 차별하는 악질적 시위가 가끔 실시되고 있습니다. 민족 차별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일본 유신의 회"라고 하는 정당의 대표인 하시모토 토오루 (橋下徹)·오사 카시장이 일본군 성노예 ("위안부") 에 대해 "당시는 필요했다" "강제가 아니 었다" 등이라고 발언해 국제적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후도 일본군 성노 예에 대한 잘못된 발언을 사과하는 일 없이 오사카시장과 정당 대표를 계속하 고 있습니다.

분한 것이지만 침략의 역사를 왜곡해 일본의 전쟁 범죄를 옹호 해, 외국인을 배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에 반대입니다. 민족 차별 주의가 아니고 평화와 평등이 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를 국제 연대에 의해서 실현되어 가는 것을 호소합니다.

우리 성명과 이상의 설명을 인터넷이나 메일로 알리고 잡지 등에 게재해주시 면 기쁩니다.잘부탁합니다.